

희생자 유실 정황 없다? ... 못믿을 해경 발표

64곳 객실문 모두 열었다는데 35명 여전히 실종 상태

“시신으로라도 돌아와 달라” 가족들 애타는 기다림만

세월호 참사

세월호 침몰 사건 22일째를 맞은 7일, “희생자가 유실된 정황은 없다”는 해경의 발표에도 실종자 명단에 남은 35명의 행방을 두고 시신 유실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사건 발생이후 탑승객 등 인원을 집계, 발표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그 숫자가 바뀐데다 이날 오후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이 직접 브리핑을 열고 또다시 실종자(33→35명)와 구조자(174→172명) 수를 조정하는 등 구조·수색 당국이 불신을 자초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날 오전까지 실종자가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객실 대부분을 살렸지만 여전히 35명이 실종자 명단에 머물고 있어 시신 유실 우려는 점차 커지고 있다.

◇대책본부 “희생자 유실 정황 없다” =법정부 사고 대책본부는 7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희생자 유실에 관한 정황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 실종자들이 갇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체 내 64곳의 객실을 모두 열어봤지만 여전히 승선객 35명은 실종상태다. 희생자 일부 유실 가능성이 커지는 이유다. 실제 유실방지전담팀이 전문 기관에 의뢰한 결과, 시신이 사고 해역으로부터 최대 60km까지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데다 시신 1구가 어민이 설치한 방재 펜스를 고정시키는 탓에 걸려 우연히 발견되는가 하면, 유실물 750여점 가운데 일부가 침몰 지점에서 30km나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시신 유실 가능성은 여전히 미지수다.

희생자를 모두 인양한다는 방침 아래 구조수색팀은 앞서 1차 수색이 이뤄진 4층 선수 중앙 객실 및 4층 선미 좌측 다인실을 중심으로 집중 수색을 벌이고 있다.

◇남아있는 실종자들은 누구=경기도 교육청과 범정부 사고 대책본부의 발표를 종합하면, 이날 오후 5시 현재 실종자는 35명으로 새롭게 실종자 명단에 오른 ▲중국인 2명, ▲학생 22명 ▲교사 5명 ▲일반인(알바생 포함) 2명 ▲사무장 및 조리장 등 서비스직 승무원 4명 등으로 잠정 집계됐다. 최근 제기된 영유아 탑승 가능성 및 승선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알바생, 외국인이나 공연 가수 가운데 승선이 확인된다면 탑승자, 실종자 인원 정정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해경은 접수사에 의해 목격된 아기 젖병 등을 토대로 영유아 탑승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탑승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가족들, “내 새끼는 언제 돌아오나요?”=진도에 남겨진 실종자 가족들은 대부분 “(어찌됐든) 어서 빨리 시신으로라도 돌아와 주길”바라는 심정과 함께 “이런 줄 알았다면 해달라는 거 다해줄 걸”이라며 애태우는 모습이었다. 2학년 9반 이모(17)양의 어머니는 “친구들 대부분이 나왔으니 너도 빨리 나와야지...”라며 애만 태우고 있다. 실내체육관에서 22일째 머물고 있는 이양의 어머니는 “맛밥이 하느라, 오후까지 수업 마치고 학교에서 바로 수학여행을 떠나는 딸을 배웅하러 학교에 찾아가길 못하게 한이 된다”면서도 “그래도 수학여행 전 주말에 함께 마용실가서 머리 자르는 것도 봐주고, 신발이며 모자며 직접 골라준 거라도 있어서 천만 다행”이라고 가슴을 쓸어내렸다.

실종된 교사 김응현(45)씨의 매형도 사정은 비슷하다. 대구에서 온 매형 김기안(47)씨는 “사일이 너무 많이 흐르고 시신 유실 얘기도 나오는 마당에, 온전한 시신까지는 아니더라도 ‘꼭, 꼭 시신만은 찾아줬으면...’ 하는 게 가족들의 현재 심정”이라고 말했다.

/진도=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고래가 되어라”

팜아티스트 이하씨 희생자 애도 팽목항에 포스터 30여장 붙여

팜아티스트 이하씨가 지난 5일 진도 팽목항 일원에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마음을 담아 제작한 작품 포스터 ‘고래가 되어라’ 30여장을 붙였다. 이씨는 침몰한 세월호를 자유롭게 바다를 유영하는 고래로 표현했으며, 포스터에 희생자들이 고래가 되어 광활한

팜아티스트 이하씨 희생자 애도 팽목항에 포스터 30여장 붙여

바다에서 마음껏 꿈을 펼치기를 바라는 내용의 글을 함께 적었다.

이씨는 지난 2012년 5·18민중항쟁 32주년을 맞아 전두환씨가 수감을 찬 채 29만원이라고 쓰인 수표를 들고 있는 작품을 선보이기도 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세월호 증축 후 매각 의뢰...문제점 인식했나

청해진해운, 오하마나호와 함께

5년간 여객선사 중 최다사고도

세월호 운행사 청해진해운이 세월호와 오하마나호에 대한 매각을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해진해운은 또 최근 5년간 전국 여객선사 중 가장 많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청해진해운이 지난 3월 선박거래 사이트에 세월호와 오하마나호를 매각 의뢰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계자를 상대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세월호와 오하마나호의 판매대금은 각각 1600만달러, 750만달러로 제시됐다.

청해진해운은 매각을 추진하며 증개인에게 복원성 문제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본부는 세월호의 경우 지난 2012년 일본에서 도입된 이후 증축공사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매물로 내놓았다는 점에서 청해진해운이 복원력 저하 등 문제점을 인식하고 매각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김춘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7일 해양수산부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청해진해운 소속 여객선들은 2009~2013년 총 6건의 사고를 냈다. 이

기간 내항여객선 사고 59건의 10%로, 전국 여객선사 중 가장 많다.

인천~백령 여객선 데모크라시 5호(396t급)의 경우 2009년 10월 추진기관 손상으로 무려 11시간 30분동안 표류했다. 승객 358명은 당초 도착 예정시간보다 7시간 늦게 인천항에 도착했다.

데모크라시 5호는 또 지난 2011년 6월 대청도를 출항해 인천항으로 운항하다 어선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해양안전심판원은 당시 짙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무중심호를 울리지 않고 레이더 경계를 소홀히 한 것으로 꼽았다. 데모크라시 5호는 세월호 침몰사건이 발생하기 불과 3주 전인 지난 3월 28일 인천 선미도 인근 해상에서 어선과 충돌, 승객 141명이 부양에 떠났다.

오하마나호(6322t급)는 지난 2011년 4월 전기공급시스템 고장으로 5시간동안 바다 한가운데 멈춰섰다. 승객 622명을 태운 오하마나호는 해상에서 긴급수리를 하고 인천 연안부두로 회항했다.

청해진해운의 경우 해상사고가 잦은 여객선사임에도, 지난해 전국 56개 선사사 대상으로 한 고객만족도 평가에서 상위권에 포함됐다. 해수부는 56개 선사 중 청해진해운을 포함, 18개 선사를 상위권 선사로 분류했다. /이종형기자 golee@

합수부, 가족 등의 언어 휴대전화 2대 분석 중

“해경, 메모리카드 무단조사는 소유자 확인하기 위한 절차”

수사 당국이 세월호 침몰 해역 인근에서 발견된 휴대전화를 분석중이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7일 현재까지 유실물로 수집된 세월호 승객 소유의 휴대전화 14대 중 2대를 가족 동의를 얻어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머지 11대는 가족들이 의사에 따라 인계했고, 1대는 아직 소유자가 밝혀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바닷물에 젖거나 훼손돼 데이터 일부가 사라진 휴대전화도 있지만 복원 가능한 부분에 남아 있는 사고 당시 동영상이나 사진 등은 수사에 결정적인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수사본부측 설명이다.

수사본부는 또 사고해역에서 발견된 생

존자 A씨의 휴대전화와 실종자 1명의 휴대전화를 남겨받아 안에 저장된 동영상 등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수사본부는 그러나 가족이나 본인 동의가 없을 때는 휴대전화에 저장된 자료를 확인하거나 보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DFC)에 보내 유심(USIM·범용가입자식별모듈) 정보를 확인해 소유자를 확인한 뒤 가족의 동의를 얻어 수사에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세월호 침몰 사고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해경이 희생자 휴대전화 메모리카드를 가족 동의 없이 무단으로 열어봤다는 논란과 관련, “해경이 휴대전화를 조사한 목적은 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DFC)에 보내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실종자 부모에 카네이션 달아줘야 할지... 진도교육청 어버이날 고민

“카네이션을 전달하고 위로해야 하는데...” 진도교육청이 고민에 빠졌다.

진도교육청이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진도군 실내체육관과 팽목항에 머물고 있는 실종 학생과 일반인 승객의 부모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것에 대해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7일 진도교육지원청에 따르면 현재 관내에 머물며 실종된 자녀들을 기다리는 학부모와 승선객 부모들에게 어버이날을 맞

아 카네이션을 전해드려야 할지를 놓고 내부회의를 거듭하고 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일부 장학사들로부터 학생들이나 교사들이 실종자 부모들이 머물고 있는 체육관과 팽목항을 찾아 카네이션을 전달하고 위로 하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자칫 실종자 가족들을 ‘울음바다’로 만들까봐 망설이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실종된 학생들의 부모는 대개 자녀가 1~2명으로 카네이션

을 달아줄 자녀가 없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카네이션을 전달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는 꽃을 전하고 위로해야 한다는 의견도 교육청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그동안 팽목항과 실내체육관에 교육청 직원들을 상주시키고 교육행정 지원에 집중해온 것처럼 어버이날이지만 카네이션 전달 등 실종자 가족의 감정을 동요시키는 행동이나 행사는 자제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도 있다.

진도교육청 관계자는 “어버이날을 앞두고 어제부터 교육장과 장학사들이 모여(실종자 부모들을 찾아가) 카네이션 전달을 해야할지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카네이션을 전달하려다 실종자 가족들을 울음바다로 만들면 어쩌나, 걱정이 앞서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선 초·중·고교에서 학교장 중심으로 카네이션 전달 행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지만, 교육청 차원에서 이를 독려하거나 제지할 계획은 현재 없다”고 밝혔다.

/진도=김형호·박현영기자 khh@

오피스텔 "매매"

주인직매 H. 010-3605-5000

광주광역시 동구 수기동 23-2번지
13층, 53P(실평33P) 창가 코너, 전망좋은
전체 올수리, 사무실 적합(주거가능)
매매가 1억 5500만원(시세/분양가 2억)
(일시불 지불시 조정 가능)

경매투자

- ▶경매 특수비법
- ▶배우면서 투자 하실 분
- ▶NPL과 특수물건만 입찰
- ▶단독, 공동투자 가능
- ▶개인지도, 3개월 완성
- ▶임장/교육비 등 1200만원
- ▶단, 상담후 본사 결정

(주) 오 천 경 매
H.P 010-3605-5000